

최지만, WBC 한국 대표 낙마…“실망감 커”

최지만(피츠버그 파이리츠)
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출전하지 못한다.

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최근 WBC 조직위원회에 최지만의 수술 이력을 사유로 WBC 참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WBC 조직위원회(WBCI)는 부상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최지만의 WBC 출전 허용 여부를 심의했고 출전 불허를 결정했다.



▲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최지만

시진=연합뉴스

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는 엄청난 꿈”이라며 “기대가 커기에 실망감과 좌절감도 매우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재활 과정을 잘 진행했고 최근에는 라이브 배팅까지 진행할 만큼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대표팀 일정에 맞춰 몸 상태를 잘 끌어 올리고 있었기에 실망감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최지만은 “다시 한번 대표팀의 꿈이 무산됐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국가대

표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겠다. 분명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만을 대신해 SSG 외야수 최지훈(25)이 2023 WBC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한다.

최지만은 지난해 11월 팔꿈치

수술 후 재활에 몰두하며 WBC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으나 이번에도 꿈이 무산됐다. 최지만은 예비명단에 포함됐던 지난 2019 프리미어12와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대표팀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최지만은 이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킹’ 르브론, NBA 최다 득점 신기록

‘킹’ 르브론 제임스(39·LA 레이커스)가 ‘전설’ 카림 압둘자바바(76)를 넘어 미국프로농구(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와 2022-2023 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3쿼터 종료 10.9초를 앞두고 골대 정면에서 페이드어웨이슛을 던져 이날 득점을 36점으로 늘렸다.

이전 경기까지 개인 통산 3만8천352점을 기록 중이던 제임스는 이로써 3만8천388점을 채우 34년 동안 까지지 않던 압둘자바바의 이 부문 최다 기록(3만8천387점)을 경신했다.

대기록을 쓴 제임스는 코트에서 두 팔 벌려 기뻐했다.



▲ NBA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운 르브론 제임스
사진=연합뉴스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경기장을 찾은 압둘자바바가 눈가가 촉촉해진 르브론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며 축하했다.

2003-2004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데뷔, 마이애미 히트, 레이커스에 몸담으며 20시즌 동안 4차례 팀 우승을 경험하고 챔피언결정전,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4차례 선정된 NBA 최고 스타

제임스는 이날 최다 득점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다. 압둘 자바바가 1,560경기를 뛴 반면, 르브론은 1,410경기 만에 득점 신기록을 세웠다.

르브론은 “압둘 자바바와 같은 위대한 레전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항상 꿈꿨던 일의 일원이 되어준 이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PGA 투어 “돈에는 돈” 총상금 LIV골프 추월



▲ LIV골프 2023시즌 아시안투어 개막전에서 우승한 아브라암 앙세르. 사진=syracuse.com

지난해 6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을 등에 업은 LIV골프가 출범하자 PGA 투어는 바짝 긴장했다. 톱랭커들이 하나둘씩 LIV골프로 자리를 옮겼다.

PGA는 이탈자들의 PGA 투어 참가를 불허했지만 그것은 PGA 투어 선수들의 이탈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결국 PGA 투어는 ‘돈에는 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PGA 투어는 올 시즌 47개 대회의 총상금액을 4억2,86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는 총액 면에서 14개 대회에 4억500만 달러가 걸려있는 LIV를 넘어선 것이다. 상금을 놓고 보면 PGA 투어 선수들이 굳이 LIV골프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

PGA 투어는 2022-2023시즌 17개 대회를 ‘특급 대회’로 지정했다. 17개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와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PGA 투어의 3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 9개 일반 대회로 구성됐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의 대회 상금이 2천만 달러 이상이다.

이젠 LIV 선수들이 PGA로 복귀하는 촌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LIV 소속 선수들은 대회에 출전해도 세계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PGA 투어 선수들은 랭킹 포인트를 얻기 손쉬워졌다.

상금 면에서도, 랭킹 포인트 면에서도 PGA 투어 선수들이 LIV골프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 UC Irvine
LA 척추신경외과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다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마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기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굽거나 빠근한 통증/어깨가 안들이기는 증상(Frozen Shoulder) / 오십견/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생 때 조기 겸진증)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殃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요통/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Tennis Elbow / 손목/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발목통증/변증상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여 윤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 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